

SK바이오팜 개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 美 시장에서 출시

2024년 시장규모 41억 달러 전망
美 FDA 승인, 자력 진출 첫 신약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뇌전증 신약 세노바메이트(미국 제품명: 엑스코프리)가 11일(현지 시각) 미국 시장에 첫 출시됐다. 판매는 SK바이오팜의 미국 법인인 SK라이프사이언스가 맡아 진행한다.

세노바메이트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해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승인을 받고, 자력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한 첫 토종 신약이다.

글로벌 신약 개발을 꾸준히 지원한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SK바이오팜과 SK라이프사이언스 전 임직원에게 영상 메시지를 보내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 개발을 통해 FDA 승인을 받고, 미국에 성공적으로 진출한 것을 축하한다"며 "세노바메이트는 혁신 신약 개발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한 사례"라며 "사회적 가치의 실현은 앞으로 우리의 성장과



SK바이오팜 '세노바메이트' 제품

영속성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글로벌 주요 국가 뇌전증 시장 규모는 약 61억달러(2018년)에 달하며, 이 중에서 54%인 33억 달러를 미국 시장이 차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 뇌전증 시장은 2024년까지 약 41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1월, 성인 대상 부분 발작

치료제로 FDA 시판 허가를 받은 세노바메이트는 출시 전부터 뇌전증 환자를 위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큰 기대를 받아왔다.

SK바이오팜 조정우 사장은 "기존 치료제를 복용함에도, 계속되는 발작으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위해 마침내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국내 제약사가 독자 개발한 신약으로서는 최초로, 전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 시장인 미국에 직접 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라고 평가했다.

SK라이프사이언스 최고 상업화 책임자(CCO) 세비 보리엘로는 "코로나19로 인해 변화된 의료 환경을 고려해서 미국 현지의 마케팅, 판매 전략을 세심하게 실행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디지털 기반 플랫폼을 도입, 원격 디테일링 및 컨퍼런스 진행으로 세노바메이트의 마케팅 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metroseoul.co.kr



1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일곱번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대한상의, 세계 첫 '민간 샌드박스' 출범

1대1 상담, 사업 컨설팅 등 제공
승인 기업에 실증트레비 등 지원

대한상공회의소가 전세계 민간단체 최초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에 팔을 걷어 붙였다.

대한상의는 12일 서울 상의회관에서 '민간 샌드박스 지원센터' 출범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과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석영 2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차 사장 및 김기웅 위쿠 대표와 변창환 과라소프트 대표 등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지난 1월 발표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에 따라 민간 최초로 설치됐다. 법령에 근거한 국내 유일의 민간 합동 지원기구로, 민간이 제도 혁신 채널을 구성하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공식 업무는 이날 출범식 이후 시작됐다. 신청 과제는 상의 사무국과 건설

팅, 변호사로 구성된 전담팀을 투입해 1대1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 작성은 물론 사업성·기술성에 관한 컨설팅과 법률 자문, 부처협의, 사후관리까지 제공한다.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기업에는 약 1억2000만원의 실증트레비와 1500만원의 책임보험료도 지원된다.

이날 행사는 현판 대신 110인치 디지털 사이니지를 설치하며 혁신을 강조했다. '미래를 여는 길, 샌드박스' 영상을 통해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보여주며 '영상 감독'을 맡은 박용만 회장의 혁신적 사업모델 육성 의지를 보여줬다.

박 회장은 인사말에서 "어려운 환경에도 일을 벌이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지만, 위험을 사전 차단하는 제도로 인해 시도 자체가 막히거나 사업모델이 '마름질'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샌드박스가 젊은이들에게 최후의 보루로 평가받고 있다"며 "국회 입법이 무산되거나, 소극 행정에 사업이 막히면 이들이 마지막으 로 찾는 곳이 바로 샌드박스이기 때문 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웅기자 juk@

대형마트 내 입점 미용실·약국·안경점 등

임대매장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가능

마트 3사 내 매장 3344곳서
혼선 방지위해 안내문 비치

대형마트 내에 입점한 미용실, 약국, 안경점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주요 대형마트에 따르면, 마트에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는 전국 158개 이마트 및 이마트 트레이더스 점포에 입점한 2400여 개 임대매장 중 30% 가량인 800여 개 매장에서 오는 13일부터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를 살펴보면 이마트에 입점한 각종 임대매장 중 미용실, 안경점, 약국, 세차장, 키즈카페, 사진관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이다.

예를 들어, 이마트 성수점은 ▲미용실, ▲안경점, ▲약국, ▲키즈카페, ▲



이마트 내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가능 매장 (약국).

구두·열쇠점, ▲세차장, ▲치과, ▲소아과 등 총 26개 임대매장 중 11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마트 월배점에서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화원, ▲차량정비소, ▲세차장, ▲치과를포함 총 25개 임대매장 중 10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통해 결제가 가능하며, 트레이더스 구성점은 ▲안경점, ▲약국, ▲차량정비소, ▲세차장, ▲동물병원 등 총 17개 임대매장 중 6곳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롯데마트는 전국 124개 매장에 입점

한 1444여 개 임대매장 가운데 55.1% 가량인 795개에서 오는 13일부터 지급하는 정부 지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용이 가능한 임대매장은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안경점, 카페, 음식점 등이다.

홈플러스도 전국 140개 점포에 입점한 6000여개 임대매장 중 1100여개 매장에서 정부가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주요 사용처는 미용실, 안경점, 약국 등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신세계 1분기 매출 1.2조... 21% 하락

영업익 32억... 전년비 97% 급감

코로나19 사태에 신세계그룹 실적이 크게 악화됐다. 신세계는 올해 1분기(1~3월) 매출액이 1조1968억원이라고 12일 공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조5168억원)보다 21.1% 줄어든 수치다.

영업이익은 32억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1096억원) 대비 약 97% 감소했다.

해외 여행이 줄면서 면세점의 손실이 가장 컸다. 매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5% 감소한 4889억원이며, 영업손실이 32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1분기 영업이익은 126억원이었다.

업계에 따르면 1분기 면세점 고객은 지난해 대비 90% 이상 감소했다.

신세계백화점 매출액은 11.7% 감소한 3311억원, 영업이익은 226억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4억원이었다. 신세계인터내셔널 매출액도 백화점과 비슷한 수준인 11.6% 감소해 323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172억원 줄어든 120억원을 기록했다. /신원선 기자

이태원 클럽관련 확진자 102명으로

직접방문자 73명, 2차감염 29명
방역당국, 클럽 출입자 파악 총력

서울 이태원 클럽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확진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재확산을 막는 것은 결국 시간싸움이라고 판단하고, 클럽 출입자 파악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관련기사 L7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2일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30명 추가 발견되면서 총 확진자수가 102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4명, 경기도가 23명, 인천이 7명 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태원 클럽 직접 방문자는 73명, 접촉으로 2차 감염된 사례는 29명이다.

특히, 집단감염 지표환자로 여겨진 '용인 66번 환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혼란에 빠졌다. 기존에 알려진 이태원 5개 클럽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새로운 업소가 등장하면 접촉자 범위는 훨씬 넓어지는 셈이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태원 일대의 5개 클럽과는 무관한 다른 유흥시설에서도 확진자 2명이

확인됐다"며 "전혀 다른 연결고리가 진행됐거나 아니면 그 지역 안에서 겹치는 동선에서 전파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제까지 5개 클럽 방문자를 대상으로 5517명의 명단을 확보했고, 그 중 2405명의 조사를 마쳤다. 나머지 방문자들도 카드정보와 기지국 정보를 통해 소재를 파악하고 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평일 기준 하루에 5000~6000여 건 수준으로 진행되던 진단검사가 어제 하루 1만2000건 이상 늘었다"며 "현재까지 이태원 클럽 등 유흥 시설 방문자와 관련해 7000여 건이 넘는 검사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것은 '시간 싸움'이라며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접촉자를 찾아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비록 코로나19가 증상발현 전에 많은 40% 이상의 전파를 시킨다고 하지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90% 이상의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결국은 역제가 가능하다"며 "(앞으로) 아주 가장 중요한 하루하루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